

소 해면상뇌증(BSE) 예방조치

◆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BSE) 예방조치를 지난 30일 열린 "가축 방역 중앙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소 해면상뇌증 국경예방 조치 강화", "소 해면상뇌증 국내예방 조치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 후속 조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식의약청, 관세청, 국립보건원 등 긴급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로 소 해면상뇌증 예방조치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 예방관련 국경예방조치로 제3국을 통해 유럽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구주연합국가(EU)등의 광우병 발생동향과 예방조치, 비 발생국의 국경, 국내조치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농림부는 외국공관에 파견중인 농무관에게 BSE가 발생하는 유럽국가와 비 발생국인 일본, 미국, 호주 등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매일 보고토록 조치하는 등 BSE대책관련 정보수집에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힘.

• 농림부는 독일내 소 40만두 도살보도와 관련하여 현지 농무관(구주연합대표부, 벨기에)을 통하여 긴

급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독일정부는 자국내에 30개월 이상된 소가 약 40만두로 추정하고, 도축 대상연령문제(24개월 이상 또는 30개월 이상), 자가폐기 또는 정부 구매후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 등 소의 처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Kuenast 농업부장관은 도축기로 결정 하였으나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함

• 농림부는 미국 텍사스주 소 해면상뇌증 사실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미국 FDA의 1.30일자 공식해명 자료에 의하면,

-미연방 정부법으로 급여가 금지된 육골분 사료를 한 소 사육농가 (1,222두 사육)에 소량급여(272kg 소에 5.5g 급여)한 것으로서

-현재 미국은 BSE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이며, 자국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를 먹인 것은 무시할 만한 적은량이었으나 사료업체(퓨리나)는 해당 소를 자발적으로 구매하여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음.

• 농림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독일 등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적절한 국내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 국내예방조치로 소, 면양 등 반추가축에 대한 육골분 사료의 급여를 금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시·도 등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소에 대한 BSE 검사 물량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었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육골분, 혈분(혈장분말) 등 동물성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도, 사료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음.
-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1일 육골분 사료를 반추수 가족에 급여 금지한 것과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어필시 약법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함.
- 1.31일 오후 한일사료, 대한사료, 흥창사료 등 3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 또는 국내산 육골분을 돼지, 닭, 개 먹이용 배합 사료원료에만 사용하고 있어, 반추가축용 사료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6년부터 실시한 국내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나, 만일을 대비하여 검사물량을 검사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실시하기로 하였음.
- ◆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가축방역 대책본부(☎02-504-9438)"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는 "예방대책상황실(☎031-467-1851)"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농림부, 관세청, 보건복지부(식의약청)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 농림부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관세청은 지난해 12.30일자 및 금년 1.17일자로 취한 구주연합국(EU) 등 30개국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동물성 단백질제품의 검역중단 조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일선세관까지 공문을 시달하여 통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국제공항, 국제항만에 입국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휴대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색을 강화하고 있음
- 앞으로도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시 수시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회의를 통해 광우병 유입 예방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1) 소 해면상뇌증(BSE)이란 ?

- ▶ 소의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뇌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형되어 폐사에 이르는 질병임
- ▶ 원인체는 비정상적 변형단백질인 프라이온으로 소가 변형단백질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肉骨粉)이나 골분을 사료로 섭취함으로써 감염되어 3-5년의 잠복기를 거친후 발병

2) Creutzfeldt-Jacob disease(CJD)란 ?

-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50대 이상의 사람의 뇌를 스폰지 모양으로 변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임

3) variant Creutzfeldt-Jacob disease(vCJD)란 ?

- ▶ 주로 20대 사람의 뇌를 스폰지모양으로 변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으로 소의 광우병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환임.

● 유럽내 BSE 발생(1986 ~ 2001. 1.28 기준)

(단위 : 두)

국 가	영 국	아일 랜드	포르 투갈	프랑스	벨기에	화 란	스페인	룩셈 부르크	덴마크	독 일	이태리	오스 트리아	스위스	리히텐 슈타인
발생 두수	180 천두	499	503	191	19	6	2	1	2	19	1	1	366	2

⊙ 유럽연합국가중 비발생국 : 스웨덴, 그리스, 핀란드

● 국내산 소에 대한 BSE검사실적 및 결과

년 도	검사두수	검사결과
1996	1,616	전두수 음성
1997	323	전두수 음성
1998	312	전두수 음성
1999	301	전두수 음성
2000	491	전두수 음성
계	3,043	음 성

●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대상국(30개)

구주연합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15개국)

비 구주연합국가

노르웨이,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15개국)

법정부적 소 해면상뇌증(BSE)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정부는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 주재로 2. 6(화), 09:00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세청장, 농촌진흥청장, 국정홍보처장, 국립보건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BSE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EU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BSE와 관련하여 법정부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BSE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만전을 다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법정부적으로 소 해면상뇌증(BSE)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업무협조, 업무조정, 정부대책 발표의 창구일원화를 기하기로 하였음.

· 동 위원회는 농림부차관(김동근)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시·상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국장급으로 실무대책반(위원장 : 농림부 서규용차관보)을 구성하고 농림부에 대책상황실(전화 : 02-500-2934)을 마련·운영키로 하였음.

①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위 원 장 : 농림부 차관

- 부위원장 : 농림부 차관보

- 위 원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국정홍보처 차장, 관세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국립보건원장

- 간 사 : 농림부 축산국장

※ 관련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외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음.

② 실무대책반 운영

· 반 장 : 농림부 차관보

· 위 원 :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의약품안전국장,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장, 농진청연구관리국장, 축산기술연구소장

· 간 사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 대책상황실 : 농림부 216호 (전화 : 02-500-2934)

③ 관련부처 협조사항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 BSE 발생국산 소유래 생산물에 대한 수입관리 철저

· 농진청·축산기술연구소

- 육골분·음식물 잔반의 가축 급여금지 등 양축 농가 홍보

제1차 소해면상뇌증(BSE)
특별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농림부는 2.6일 개최된 제1차 소 해면상뇌증 특별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을 재활용쓰레기와 BSE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일 오후 축산·수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중앙협의회와 오는 2.8일 식약청에서 개최예정인 의학관계전문가회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키로 하였음.

·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활용한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의 음식물 사료화업체 233개소에 대해 음식물 사료의 가축별 사용실태를 농림부와 함께 전면 추적조사키로 하였음.

· 관세청은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육골분 수입등과 관련하여 육골분의 용도별 수입실적 등을 별도 구분하여 농림부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음.

■ 농림부는 동회의결과에 따라 2.6일 오후 15:00 가축방역중앙협의회와 제1차 관계부처 BSE특별대책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재활용 사료의 BSE 관련성 문제, 음식물 재활용 사료 급여소의 처리방안 및 BSE관련 관계부처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을 협의키로 하였음.

음식물찌꺼기 사료 안전하다

농림부는 6일 각계 방역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 중앙협의회'를 열어 남은 음식물을 소사료로 이용했더라도 광우병에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국내에서 BSE(광우병)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쇠고기수입이 허용된 국가도 BSE가 발생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소에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광우병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선(金龍善) 교수(한림대 의대)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소내장과 등골 등을 생식했는데도 변형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에 걸린 사람이 없다"면서 "남은 음식물로 기른 소를 먹었다고 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영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쇠고기를 많이 먹었을 경우나 유럽지역에서 동물성 사료가 들어왔을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은 남은 음식물을 계속 반추가축에 사료로 활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3명은 아예 활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계속 남은 음식물을 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남은 음식물을 먹어 사육한 것으로 파악된 소에 대해서는 현 사육농가에서 임상검사(육안검사)후 문제가 될 경우 광우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은 음식물을 먹인 소를 우선적으로 연간 600마리씩 실시하는 광우병 검사 대상에 넣겠다고 덧붙였다.

제2차 “소 해면상뇌증(BSE) 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 “제2차 범정부적 소 해면상뇌증(BSE)특별위원회” 회의를 2.10일 농림부 차관(김동근) 주재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회의는 그간의 BSE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사항을 논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관련기관의 책임아래 상호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수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유럽국가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사료 등 모든 동물성 단백질제품, 의약품, 식품 등의 관리를 관계기관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관리를 하기로 함.

-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식의약품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관세청은 관세법을 적용하여 BSE관련 품목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통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함.

· 공항, 항만에서의 밀수입 및 휴대품 단속 등 검역·국경조치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함.

· 일반승객 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검색 강화와 외항, 연안항을 통하여 밀수입되

는 축산물과 BSE관련 제품의 단속강화.

· 세계의 BSE발생상황 및 예방조치 내용과 국내·외 CJD, vCJD의 발생상황의 관계기관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회의개최, 전문가 협의회 등을 갖기로 함.

· 소 해면상뇌증의 예방대책 발표이후, 쇠고기 소비심리 부양을 위하여 BSE 관계전문가(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학장 등)로 하여금 대대적인 관계기관, 생산자, 소비자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키로 함.

· 식의약품은 BSE관련 의약품 등 안전대책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2001. 2. 14)를 개최하기로 함.

· 국립보건원은 DJD환자 발생시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제반조치에 관한 “안전관리수칙”을 개발·보급키로 함.

■ 이 특별위원회에는 농림부 차관, 차관보, 축산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식의약품 차장, 관세청 차장, 국립보건원 바이러스 질환부장,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 환경부 폐기물 자원국장이 참석하였다고 덧붙였다.

부스틴-에스와 바디컨디션(BCS)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바디컨디션이란 체중의 증감이 아닌 체지방의 축적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젖소는 체지방을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는데 바디컨디션이 3.0이상이 되면 젖소에 무리없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2.5 이하가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다음 비유기에 정상적인 상태로 도달되기 어렵고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스틴-에스를 투여할 경우 체내의 체지방 분해가 많아지므로 적정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디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